

國立公園에 Visitor Center設置를...

편익제공 뿐만 아닌 公園保護의 側面에서

崔 鎮 燮

최근들어 生活의 여유가 생기면서 國立公園 찾는 人口가 매년 부쩍 늘어가고 있다(년평균 증가율 25%). 각박한 都市生活의 속박에서 벗어나 自然을 접하여 새로운 기분을 가져보는 것이 모두의 바램이다. 이에따라 무작정 사람들이 지나치게 自然을 利用할 경우 自然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사람에 의한 훼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과밀이용이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밀이용에 의한 훼손대책과 公園을 찾는 利用客의 편의 및 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에 Visitor Center나 Information Center의 設置가 시급한 실정이다.

Visitor Center는 1930년경에 美國에서 처음으로 公園의 案内 및 利用客의 서서비스를 위해 設置되었는데 여기에는 公園에 대한 說明書, 안내팜플릿, 動·植物분포, 文化財, 天然記念物, 기암 등의 自然 資源현황, 展示館, 弘報館, 영사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의 안내와 계도를 맡아 教化의 장소로 쓰이고 있다. 國立公園을 처음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公園을 利用하기 전에 그 公園의 景觀 및 生態, 自然과 歷史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는 슬라이드나 영화를 보고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Visitor Center 주변에서 야생동물 등을 관찰할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랜드 테톤(Grand Teton) 國立公園의 “무스 비지터 센터”(Moose Visitor Center), “콜터베이비지터 센터”(Colter Bay Visitor Center) 같은 곳에서는 公園內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요일 및 시간별로 마련하여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는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 탐방객이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Colter Bay Visitor Center”에서는 火·金曜日 오후 1:30에는 美원주민들의 歷史와 그 시대의 文化에 대해 약 30分間 토론을 하는 “Indian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火·木·土曜日의 오후 7:00에는 “야생동물 관찰” 시간이 있으며 슬라이드를 통하여 公園內의 야생동물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하기도 한다.

한편 日本에서는 1961년에 瀨戶內海 國立公園의 廣島 宮島지구의 整備를 처음으로 現在 27個 國立公園에 60個所와 54個 國定公園에 21個所의 Visitor Center를 設置 운영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Visitor Center의 관리운영체제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환경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곳이 20個所, 국고보조로 운영하는 곳이 20個所, 縣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 11個所, 都 단독 1個所, 町 단독 4個所, 民間이 운영하는 곳이 3個所, 기타 1個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富士箱根伊豆 國立公園에서는 Visitor Center內에 “모형도”를 제작하여 公園의 주요시설, 文化財, 희귀동식물 분포지역 등 주요자원 등을 표시하여 公園全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표본실을 마련하여 이들 지역내에 분포된 公園資源을 展示하여 公園을 이해시키고 있다.

Visitor Center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여 중요한 公園施設로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自然公園의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英國의 경우 10個의 國立公園에서 “레이크 디스트릭트”(Lake District) 국립공원의 10個所를 비롯하여 모두 59個의 Information Center가 公園 주요지역에 3~10個씩 設置되어 있다.



〈日本 日光國立公園의 Visitor Center〉



〈日本 富士·箱根·伊豆國立公園의 箱根Visitor Center〉

이처럼 날이 갈수록 도처에서 Visitor Center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으며 안내소를 통한 탐방객의 적정분산 배치로 수용력의 해결에도 일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全國 17個 國立公園에 Visitor Center가 設置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

지난해 본 협회를 찾은 美國의 國立公園局에서만 20여년간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Grand Canyon” 관리사무소장(W. Marks)은 우리나라의 몇 국립공원을 둘러본후 外國人이나 단체탐방객을 위한 Visitor Center나 안내소가 없어 많은 불편을 느꼈다고 한다. 국립공원을 위락시설이나 유희에만 치우쳐 유원지화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휴식 및 敎化의 장소로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88올림픽 및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치루어질 시점에 外國의 관광객도 상당수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에게 우리의 수려한 경관자원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Visitor Center는 外國人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全 公園에 설치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 전문인력의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일차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전 공원에 확대 설치해 나가면 무리가 없을 것이며 거창하게 만들것만 생각지 말고 小規模로나마 그 自然公園의 特殊性을 理解할 수 있게 빨리 始作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isitor Center를 단순히 利用者를 위한 편의제공만의 인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정보, 자료수집, 통계 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인원의 분산배치 등으로 수용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며 과밀利用으로 인한 生態系의 훼손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국립공원의 관리체계가 이루어져 公園保護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韓國國立公園協會 研究員).